

# KERI Brief

##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모** 든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법인세 인상,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 반기업·친노조 정책, 규제강화 등 정책실패가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고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평가하면서 예견했던 일이다. 본 연구는 CE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가 3.3%포인트(24.2% → 27.5%) 인상으로 총국내투자는 20조 9천억 원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1.12% 감소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75만 원~84만 원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직접투자 6조 7천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천억 원 감소하여 순자본유출이 1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총국내투자의 50%가 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 소재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 송금하는 투자 소득은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해외소재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송금한 소득은 1조 9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유입과 투자 증가 - 고용증가 - 생산증가 - 투자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가 시급하다.

## 1. 서론

### □ 현 정부 들어 모든 경제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에 9만 7천명으로 2017년의 1/3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3.8%로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17.7%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10.4% 증가하면서 5분위 배분율이 5.95까지 치솟아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를 기록하고 있음
-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10개월째 동반 하락하여 49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19.5%나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올 1분기 우리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4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9%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1.7억 달러로 35.7%나 감소하였음
-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6개월 연속 감소하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음

### □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를 인상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하고, 반기업·친노조 정책, 규제강화 등 국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킨 정책실패가 자리 잡고 있음

-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면서 2018년 성장률 3.2%를 기록했고, 올 1/4분기는 전기대비 0.8% 성장률을 달성하고, 실업률은 3.9%로 완전 고용을 시현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인하는 물론 유형자산 구입비용의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원천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음
-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미국의 GDP는 3~5%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억 달러 증가하고, 해외 직접투자는 1,310억 달러 감소하여 순자본 유입이 3,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근로소득은 최소 4,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One-In, Two-Out식"의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제조시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Dodd-Frank법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하였음<sup>1)</sup>

- 미국의 감세정책과 규제개혁 정책으로 자본이 미국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증가 - 가계소득증가 - 생산증가 - 투자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 □ 본 연구는 CEA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의 법인세율 인상이 GDP, 투자, 자본유출입,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가계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지방세 포함, 24.2% → 27.5%)로 3%포인트(3.3%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상승하면서 자본유출, 투자감소,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1) Dodd-Frank Act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은 2007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와 감독구조개선을 위한 Dodd-Frank 법안 폐지 및 대체를 위한 행정명령을 의미함

- CEA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추정된 탄력성을 적용하여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추정하고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II. 기존연구

### 1.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Jorgenson의 신고전학파의 모형에 따르면, 자본의 한 단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인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법인세율 인상 →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스톡 감소 → 노동의 생산성 감소 → 성장률 둔화

- <그림 1>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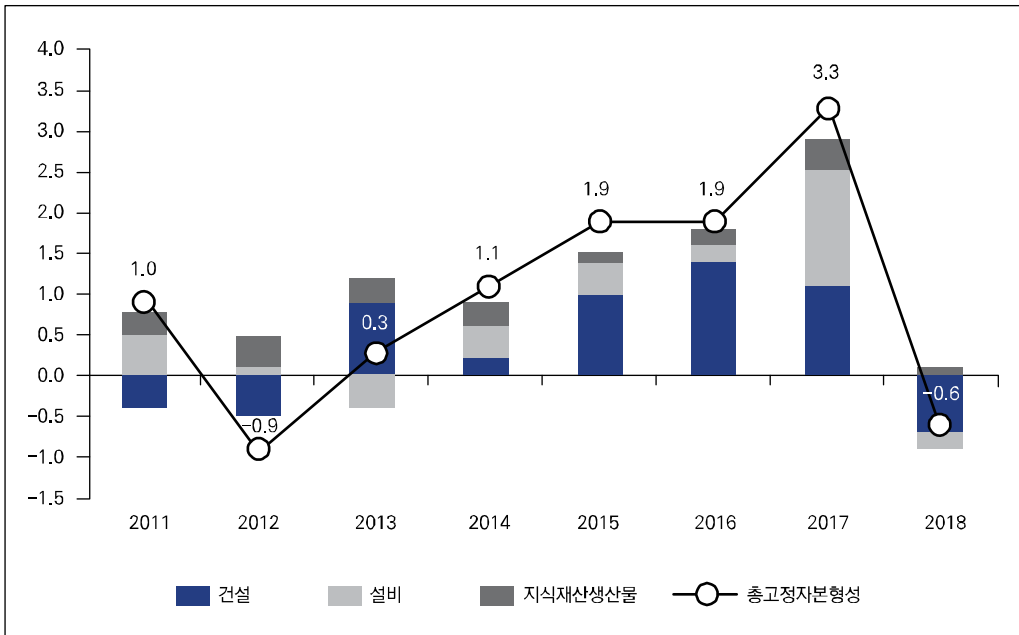
- 최소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기회비용)보다 커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비용은 이자율, 감가상각률, 각종 세부담율에 의해 결정됨<sup>2)</sup>

$$c = \frac{(r + \delta)(1 - k - \psi)}{(1 - \tau)(1 - t)} \quad (1)$$

2) 모든 법인의 소득이 배당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한 경우임

<그림 1> 투자형태별 실질 GDP 기여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여기서  $c$ 는 자본 단위당 사용자비용,  $r$ 은 이자율,  $\delta$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sup>3)</sup>  $k$ 는 투자세액공제율,  $\psi$ 는 자본재 단위당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tau$ 는 법인세율,  $t$ 는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의미
-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은 투자세액공제율과 가속감가상각공제율이 클수록 감소하고, 법인세율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클수록 증가함

○ 세법에는 자산유형별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율을 규정해 놓고 공제해주는 감가상각 공제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psi = \sum_{t=1}^T \frac{\tau D(t)}{(1+r)^t} \quad (2)$$

- 여기서  $D(t)$ 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구매가격대비 공제비율을 의미하며,<sup>4)</sup>  $T$ 는 내용연수를 의미함
-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면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내용연수 기간에 구입비용 모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내용연수 기간을 짧게 할수록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고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감소하게 됨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는 유형자산 구입비용의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fully capital expensing for capital investment)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유형자산 구입 시 자산 구입비용의 100%만큼 추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음<sup>5)</sup>

□ 사용자비용이 증가하면 자본수요(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입증하려는 실증분석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사용자비용을 우선 추정된 이후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Hassett and Hubbard(2002)와 CEA(2017)의 문헌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은 -1.0이러는데 학문적 합의(consensus)가 이뤄지고 있음

- Dwenger(2014)도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 탄력성이 신고적학파의 주장과 같이 -1.0이라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구매한 해에 모두 소모되는 소모품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한 해에 모두 공제되지만, 내구재는 한해에 모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소모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소모되는 액수만큼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됨. 내구재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만큼 매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경제적 감가상각이라 함

4) 예를 들어, 구매가격이 100원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면 매년 1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추가상각률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함

〈표 1〉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

저자	투자 탄력성
Hassett and Hubbard(2002)	-1.0
Cummins and Hassett(1992)	-1.1(장비), -1.2(구축물)
Auerbach and Hassett(1992)	-0.67(장기 탄력성)
Cummins et al(1996)	-0.67 (?)
Djankov et al(2010)	-0.835
Caballero et al(1995)	-0.01(수송부문), -2.0(섬유산업), 산업 평균 -1.0
Scheller(2006)	-1.6
Harhoff and Ramb(2001)	-0.42
Dwenger(2014)	-0.9 (Chi test -1.0 accept)
Chirinko et al(1999)	-0.25
곽태원(2005)	0.5~-1.0
Giroud and Rauh(2017)*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준탄력성 -0.25~-0.25
Ohrn(2017)*	법인세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준탄력성 4.7
황상현·설윤(2014)*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에 대한 투자 -1.3% 한계실효세율 1%포인트에 대한 투자 -2.7%

주: \*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 탄력성이 아니라 법정 법인세율 또는 한계세율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함  
 자료: Hassett and Hubbard(2002)와 CEA(2017)의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연구를 추가함

2. 법인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De Mooij and Ederveen(2003, 2005)의 문헌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에 대한 FDI의 준탄력성 평균(mean)은 -3.3~-3.72에 달함<sup>6)</sup>

○ De Mooij and Ederveen(2005)는 새로운 연구를 추가하여 427개의 준탄력성 값의 평균을 -3.72로 제시하고 있음<sup>7)</sup>

- 분석 방법에 따라 분류할 경우 시계열분석의 평균이 -2.61, 횡단면 분석의 평균이 -7.61, 패널분석의 평균이 -2.73, 이산선택분석(discrete choice model)의 평균이 -3.43에 달하고, 전체 평균은 -3.72로 추정하고 있음

○ De Mooij and Ederveen(2008)에서는 한계실효세율에 대한 준탄력성을 -2.4, 평균실효세율에 대한 준탄력성을 -5.9, 법정 법인세율에 대한 준탄력성을 -2.4로 제시하고 있음

- 6) 준탄력성은  $semielasticity = \frac{\partial \ln FDI}{\partial \tau}$ 로 측정됨. 따라서 준탄력성 -3.30이 의미하는 바는 법정 법인세율( $\tau$ )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3.3% 감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7) De Mooij and Ederveen(2003)는 기존연구로부터 추출한 351개의 준탄력성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음

〈표 2〉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준탄력성

	Number of elasticities	Mean	Median	Max	Min	S.D.
Hartman, 1984	6	-2.6	-3.5	2.0	-4.0	2.3
Bartik, 1985	3	-6.9	-6.6	-5.7	-8.5	1.4
Boskin and Gale, 1987	12	-5.8	-2.7	0.3	-21.2	7.6
Newlon, 1987	2	-0.4	-0.4	3.5	-4.3	5.5
Young, 1988	12	-1.1	-2.1	5.3	-9.2	4.2
Murthy, 1989	4	-0.6	-0.7	0.5	-1.6	1.0
Slemrod, 1990	58	-5.5	-3.5	17.8	-84.5	14.4
Grubert 3rd Muttl, 1991	6	-1.7	-1.6	-0.6	-3.3	1.2
Papke, 1991	2	-4.9	-4.9	-0.9	-8.8	5.6
Hines and Rice, 1994	4	-10.7	-5.0	-1.2	-31.7	14.1
Jun, 1994	10	-0.5	-1.3	5.9	-5.4	3.2
Swenson, 1994	10	1.3	2.7	5.1	-8.1	4.3
Devereux and Freeman, 1995	4	-1.6	-1.6	-1.4	-1.7	0.1
Hines, 1996	46	-10.9	-10.2	-1.1	-36.7	8.2
Pain and Young, 1996	6	-1.5	-1.4	-0.4	-2.8	1.2
Cassou, 1997	17	-7.5	-2.8	3.1	-44.7	13.5
Shang-Jin, 1997	5	-5.2	-5.0	-4.7	-6.2	0.6
Devereux and Griffith, 1998	10	-0.8	-0.9	0.0	-1.2	0.4
Billington, 1999	2	-0.1	-0.1	-0.1	-0.1	0.0
Broekman and van Vliet, 2000	3	-3.3	-3.5	-2.5	-4.0	0.8
Gorter and Parikh, 2000	15	-4.5	-4.3	4.2	-14.3	4.2
Grubert and Mutti, 2000	15	-4.0	-4.2	-1.7	-5.8	1.2
Altshuler, Grubert and Newton, 2001	20	-2.7	-2.6	-1.4	-4.0	0.8
Benassy-Quere et al., 2001	4	-5.0	-5.0	-2.2	-7.9	3.0
Swenson, 2001	95	-3.9	-3.2	8.0	-29.9	8.4
Buttner, 2002*	23	-1.52	-1.59			0.58
Benassy-Quere et al., 2003*	19	-5.37	-4.22			3.21
Stöwhase, 2003*	5	-7.36	-6.82			1.12
Buttner and Ruf, 2004*	15	-0.42	-0.39			0.35
Desal, Foley and Hines, 2004*	2	-0.64	-0.64			0.02
Stöwhase, 2005*	14	-5.26	-4.30			2.71

자료: de Mooji and Ederveen(2003), \*는 de Mooji and Ederveen(2005), CEA(2017) Table 1에서 재인용

**3. 법인세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는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저세율국으로의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전략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과거에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정(transfer price)과 부채 조정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디지털화로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국제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sup>8)</sup>

○ 법인세율 인하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확대 → 다국적 기업 소득(profit)의 해외이전 축소 & 국내로의 송금 증가 → 국내소득 증가

▣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에 대한 준탄력성을 추정 한 기존연구의 평균은 -0.8~-1.0에 달하고 있음

○ 준탄력성 -0.8~-1.0의 의미는 모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이 8%~10% 증가한다는 것임

- <표 3>에서 보듯이 OECD(2015)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기존연구의 준탄력성에 대한 평균(average)은 -1.0으로 조사되고 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는 기존연구의 추정 값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0.8에 달하고 있음

▣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의 송금과 외국계 소재 한국 자회사의 국내 송금에 대한 준탄력성을 나누어 추정하고 있는 조경엽·정연호(2018) 연구의 준탄력성은 1.55(유출)~-1.05(유입)에 달함

-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이 1.55로 외국계 자회사의 -1.05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어, 한국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어 격차가 확대되면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가 한국으로 송금하는 소득은 1.55% 감소하고,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로의 송금은 1.05% 증가함

- 조경엽·정연호(2018)는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자회사 소재 국가보다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sup>9)</sup>

8)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과세요건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9) 한국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4.15로 추정되어 반대의 경우 -1.36보다 3배 이상 높게 추정되고 있음. 또한 외국계 모회사가 직면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을 경우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196으로 반대의 경우 -1.246보다 1.8배 높게 추정됨



〈표 3〉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준탄력성

Authors	Year	Semi-elasticity	Tax variable	Time Period	Coverage
Dischinger	2007	-0.70	STR	1995~2005	EU entities
Huizinga and Laeven	2008	-1.30	STR	1999	EU entities
Azemar	2010	-1.00	US-STR and foreign ETR	1992~2000	foreign aff. of US parents
Becker and Riedel	2012	-0.70	STR	1995~2006	EU entities
Blouin, Robinson and Seidman	2012	-0.50	STR	1982~2005	foreign aff. of US parents
Dischinger, Knoll and Riedel	2013	-0.50	STR	1995~2005	EU entities
Dharmapala and Riedel	2013	-1.10	STR	1995~2005	EU entities
Markle	2015	-0.90	composite var. based on STR	2004~2008	worldwide entities
Dowd, Landefeld and Moore at United State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15	-1.30	STR and ETR	2002~2010	foreign aff. of US parents
Clausing	2015	-2.40	ETR	1983~2011	foreign aff. of US parents
Schwarz	2009	-3.50	ETR	1999~2001	foreign aff. of US parents
Grubert	2012	-1.60	change in foreign ETR	1996, 2004	foreign aff. of US parents
OECD	2015	-1.00	STR	2000~2010	worldwide entities
Loretz and Mokkas	2011	-1.10	STR	2002~2009	EU entities
Lohse and Riedel	2013	-0.40	STR	1999~2009	EU entities
Beer and Loeprick	2013	-1.00	STR	2003~2011	worldwide entities
Beuselink, Deloof and Vanstraelen	2014	-1.60	composite var. based on STR	1998~2009	EU entities
Maffini and Mokkas	2011	-1.00	STR	1998~2004	worldwide entities
Weichenrieder	2009	-0.50	STR	1996~2003	German aff. of foreign par.
Heckemeyer and Overesch	2013	-0.80	STR and ETR	various	various

Note: Studies estimating tax semi-elasticities of profit shifting published after 2006. In case of no preferred estimate, the base line specification was used. "C" stands for tangible capital, "L" for employee compensation, "ADD" for additional variables; a "x" indicates that corresponding control variables have been included. In the last column "FS" indicates financial statement data, "IS" investment survey, and "TR" tax return data.

Source: OECD Action 11(2015)에서 발췌하여 정리

4. 법인세가 임금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높은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지난 5년간의 임금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의 임금 증가율이 확연히 높음

○ 임금 증가율 격차가 '13년에 0.8%포인트이던 것이 '16년에는 2.8%포인트까지 확대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는 노사협약(직접효과), 생산성향상효과(간접효과), 법인세 부담의 노동으로의 전가(귀착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직접효과) 법인세 인하 → 자본소득 증가 → 노사협상 → 임금 증가<sup>10)</sup>

○ (간접효과) 법인세 인하 → 투자 증가 → 자본 장비율(자본/노동시간)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임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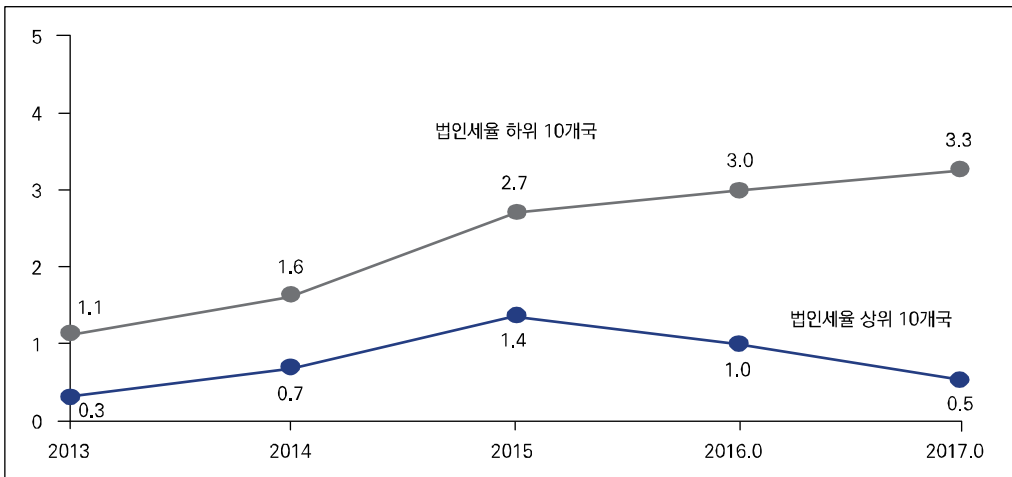
- Ollivaud et al(2016)은 자본장비율(capital deepening)이 노동생산성을 연간 0.8%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장비율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 인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Azemar and Hubard(2015)에 따르면 법인세에 따른 임금변화는 3/4은 간접효과로 인해 발생하고 1/4은 직접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노조의 협상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직접효과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10) Arulampalan et al(2012) 참조

〈그림 2〉 법인세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임금 증가율



주: 2017년 USD PPPs로 측정된 2017년 기준의 연평균 임금 증가율로 10개국의 증가율의 단순평균임  
 자료: OECD Stat

- 현대경제연구원(2015)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장비율의 기여도는 2001~2007년에 4.9%포인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0%포인트로 하락했음
- Southwood(2014)는 자본의 이동성과 요소 간·제화 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연구의 평균적인 법인세의 노동귀착율은 57.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Arulpalapam et al(2012) 50%, Desai et al(2007) 45%~75%, Gravelle and Smetters(2006)<sup>11)</sup> 21%~73%, Randolph(2006) 59%~70%
  - Jensen and Mathur(2011)은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어지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법인세의 근로자 부담비중은 50%를 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표 4>는 법인세 변화에 대한 임금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음

-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지역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국가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음
  -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임금별 준탄력성은 Felix(2009) -0.14~-0.36, Carroll(2009)이 -0.1~-0.2,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가 -0.14로 추정하고 있음
  -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Hassett and Mathur(2015)가 -0.5, Felix(2007) -0.7~-1.23, Azemar and Hubbard(2015)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0.43(OECD)로 추정하고 있음
- CEA(2007)은 -0.16에서 -0.33을 적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35% → 20%)에 따른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연평균 4,000달러에서 9,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1)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전가비중이 높아지는데 국제 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으로의 전가 비중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표 4> 법인세율에 대한 임금 준탄력성

저자	데이터	임금 탄력성
Felix(2009)	미국 주 1977~2005년 데이터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0.14~-0.36
Carroll (2009)	미국 주 2002~2005년 데이터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0.1~-0.2
Liu and Altshuler(2013)	US Elasticity	한계실효세율 변화, -0.03~-0.04
Fuest et al(2017)	독일 지자체 1993~2012년	지방사업소득세 변화, -0.14
Dwenger et al(2013)	독일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1.24~2.36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	캐나다 주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변화, -0.15~-0.24
McKenzie and Ferede(2017)	캐나다	법인세율 변화, -0.11~-0.15
Hassett and Mathur(2015)	65개국 25년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0.5
Felix(2007)	65개국 25년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0.7~-1.23
Azemar and Hubbard(2015)	OECD	법정 법인세율 1%포인트, -0.43

자료: CEA(2017) 내용 정리

## 5. 법인세율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조세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계량모형으로 Blanchard and Perotti(2002), Romer and Romer(2010), Mertens and Ravn(2013) 등을 꼽을 수 있음

○ Blanchard and Perotti(2002)는 구조적 벡터 자기진행분석(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을 이용하여 초기의 세금승수는 0.7로 추정하고 있으며 7분기 이후 1.33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Romer and Romer(2010)는 조세정책에 대한 대통령 연설이나 국회 보고서의 역사적 기록(narrative history)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 분석을 통해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1% 증가하면 GDP는 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CET(2017)는 Romer and Romer(2010)의 결과를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적용할 경우 GDP는 첫해에 0.4~0.8% 증가하고 3년간 누적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Mertens and Ravn(2013)은 SVAR과 이벤트 분석 방법을 결합한 혼합 모형을 통해 소득세율의 1% 포인트 감소하면 일인당 GDP는 첫 분기에 1.4% 증가하고 1년 후에 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CET(2017)는 Mertens and Ravn(2013)의 결과를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적용할 경우 일인당 GDP는 3.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미국의 GDP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CET(2017)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을 사용자비용 - 투자 변화 - GDP 변화 순서로 추정하고 있는데, 투자 변화에 따른 GDP 변화는 CBO의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고 있음

- CET(2017)는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인하되면 GDP는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

○ Benzell et al(2017)은 세대중첩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면 미국의 자본스톡은 12~19% 증가하고, GDP는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vans(2017)도 OLG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스톡 7.7%, GDP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Tax Foundation(2017)은 자본스톡은 13%, GDP는 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조경엽(2017)은 다국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미국의 투자는 13% 증가하고, GDP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으로의 자본쏠림으로 한국의 GDP는 0.4% 감소하고, 여기에 한국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한국의 GDP는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II.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 1.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투자변화

□ 본 연구는 CEA(2017)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다음 순서로 추정함

- 자본의 사용자비용 추정 → 투자 변화(자본 유출입) → GDP 변화 → 가계소득 변화 순서로 추정함
- 각 단계별 추정은 앞서 살펴본 기존연구의 탄력성을 적용한 결과와 성장회계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정합성을 평가함

□ <표 5>에서 보듯이 법인세율 24.2%에서 27.5%로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65% 증가함

-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추정하면, 법인세율이 24.2%일 경우 한 단위 투자의 사용자비용은 0.1519로 추정되고, 법인세율이 27.5%로 3.3%포인트 인상되면 0.1574으로 추정되어 3.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식 (1)에서 투자세액공제율은 법인세율 24.2%의 사용자비용을 추정할 때 3%를 적용하였으며, 법인세율이 27.5%의 사용자비용을 추정할 때는 1.5%를 적용하였음<sup>12)</sup>

- 이자율은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의 10년 평균인 5.04%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7%를 적용하였으며,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15.4%를 적용하였음
- 식 (2)의 현재가치로 추정된 감가상각비용은 자본 유형별로 추정하고, 투자비중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추정하였음<sup>13)</sup>
- 내용연수는 설비 5년, 무형자산 10년, 건축물 30년을 적용하였음

□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 인상하면 투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0조 9천 6백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 문헌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은 -1.0으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1.0을 적용하였음

- 12)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R&D 공제를 1~3%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당기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1%포인트 인하하였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에서 각각 1~3%로 2%p씩 축소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세액공제율의 감소를 3%에서 1.5%로 가정하였음. 2017년 세법개정 참조
- 13) 2018년 기준 설비, 무형자산, 건축물의 고정자산 형성의 비중은 각각 29.3%, 20.4%, 50.3%에 달함

<표 5>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사용자비용

법인세율 (%)	사용자비용 (투자 1단위당)	사용자비용 증감(%) (a)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 <sup>1)</sup> (b)	총고정자본형성 <sup>2)</sup> (10억 원) (c)	투자변화 <sup>3)</sup> (10억 원) d=(axbxc)/100
24.2	0.1519	-	-	-	-
27.5	0.1574	3.65	-1.0	574986.4	-20961.6

주: 1) 투자탄력성은 학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1.0을 사용함

2) 2018년도 명목 총고정자본 형성

3) 사용자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변화는 사용자비용의 변화(1.8%), 탄력성(-1.0), 총고정자본형성을 곱하여 추정

2. 자본의 유출입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는 6조 7천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천억 원 감소하여, 총자본유출은 10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
- 법정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FDI의 준탄력성은 de Mooij and Ederveen(2005)에서 제시한 기존연구의 평균인 3.72를 적용하였음
  - 법인세율 인상분(3.3%포인트)과 준탄력성(3.72)을 곱하여 2018년 실적치에 적용하면 해외직접투자는 6,111백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302백만 달러 감소하여, 순자본유출은 9,414백만 달러에 달할 전망
  - 2018년 연평균 환율 1,100.3원/달러를 적용하면 해외직접투자는 6조 7,242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336억 달러 감소하여, 순자본유출은 10조 3,578억 원에 달함
- 이는 앞서 추정된 국내총투자 감소액 20조 9,616억 원의 약 50%에 달하는 수준임

3. GDP 변화

-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GDP가 감소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성장회계모형)을 적용하여 단기와 장기 의 GDP 변화를 추정하였음
- 성장모형은 조경엽(2016)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투자 증가에 따른 초기 자본스톡의 변화와 새로운 균제상태의 장기효과를 추정하였음
  - 초기의 자본은 앞서 추정된 투자변화 약 20조 9천 6백억 원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균제상태에 접근한다고 가정하였음<sup>14</sup>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초기연도의 GDP는 0.31% 감소하고 점차 감소폭이 증가하다가 장기적으로 2.34%까지 감소하여 연평균 1.03%씩 감소할 전망임

14) 균제상태의 자본스톡은  $K^* = (1 - \delta)(I + \nabla I) / (r + g)$ 로 추정하였음. 여기서  $\delta$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하며,  $r$ 은 이자율,  $g$ 는 성장률,  $\nabla I$ 는 법인세변화에 따른 투자변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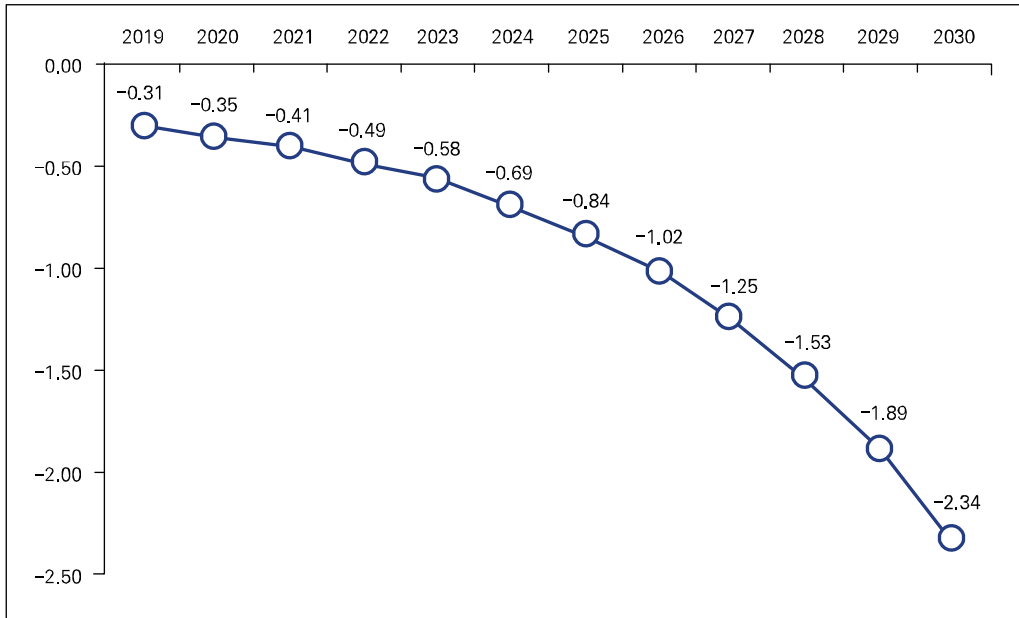
〈표 6〉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변화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2018년 실적 (백만 달러)		49,782	26,901	-22,881
변화	백만 달러	6,111	-3,302	-9414
	십억 원	6,724.2	-3,633.6	-10,357.8

주: 환율은 2018년 연평균 1,100.3원/달러 적용

〈그림 3〉 중장기 GDP 변화

(단위: %)



주: 기준시나리오 국회예산정책처(2016) 장기전망으로서 GDP 변화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변화를 의미함

#### 4. 가계소득 변화

□ 성장회계모형에서 도출된 GDP 감소분 중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정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을 추정하면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연 65만 원~75만 원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장기전망에 기초하여 2019~2030까지의 연평균 실질 GDP는 2,039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GDP 감소율 1.03%를 적용하면 GDP는 연평균 20조 9천억 원씩 감소함
- 노동배분율은 61.4%와 70%를 적용하였는데, 61.4%는 2009~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배분율을

의미하고 70%는 성장회계모형에서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함

- 노동배분율을 연평균 GDP 감소액에 적용하면 총 노동소득은 12조 8천억 원~14조 6천억 원 감소할 전망
- 이를 일반가구 수 1,967만 3천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5만 3천 원~74만 5천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7〉 GDP와 노동배분율에 따른 가구당 근로소득 변화

	총노동소득 변화 <sup>1)</sup> (10억 원)	가구당 연평균 소득변화 <sup>2)</sup> (원)
노동배분율 (61.4%) <sup>3)</sup>	-12862.4	-653,779
노동배분율 (70%) <sup>4)</sup>	-14663.9	-745,351

주: 1) 연평균 GDP 감소율을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추정된 2018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 GDP에 적용하여 추정하면 GDP는 연평균 20조 9,485억 원씩 감소할 전망

2) 2018년 일반가구 수는 1,967만 3,875가구에 달함

3) 61.4%는 2009~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배분율을 의미함

4) 70%는 일반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서 사용하는 노동배분율을 의미함

〈표 8〉 법인세 인상의 임금 준탄력성을 이용한 가구당 근로소득변화

(단위: 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연간 근로소득	21,491,045	3,685,488	11,312,903	17,523,138	25,252,168	45,856,618
준탄력성 0.43	-304,958	-52,297	-160,530	-248,653	-358,328	-650,705
준탄력성 1.23	-872,322	-149,594	-459,191	-711,264	-1,024,985	-1,861,320

주: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은 2018년 분기별 균등화 근로소득의 평균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근로소득을 추정하였음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준탄력성을 이용하여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30만 원~87만 원 감소할 전망

○ 우리나라는 지역별 법인세율 격차가 없기 때문에 CEA(2017)와 다르게 국제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준탄력성을 0.43~1.23을 적용하였음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된 Azemar and Hubbard(2015)의 준탄력성 0.43을 하한선으로 가정하였으며, Felix(2007)의 준탄력성 1.23을 상한선으로 가정하였음

- 가계동향조사의 2018년도 분기별 소득의 평균을 연간소득으로 전환하면 전체가구의 근로소득은 약 2천 149만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법인세율 3.3%포인트와 준탄력성을 곱하여 추정하면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0만 원~87만 원 감소할 전망

5.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은 1조 1천억 원~2.4조 원 증가하고, 국내로 송금되는 소득은 1.9조 원~2.8조 원 감소할 전망

○ 우리나라의 2018년도 투자소득지급은 3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투자소득수입은 37조 4천억 원에 달함

- 여기에 조경엽·정연호(2018)가 추정된 소득유출에 대한 탄력성 1.55와 유입의 탄력성 -1.05를 적용하면 지출은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1조 9천억 원 감소할 전망

- OECD(2015)가 조사한 기존연구의 평균 준탄력성을 적용하면 지급은 1조 원 증가하고 수입은 1조 2천억 원 감소할 전망



- Hines and Rice(1994) 준탄력성 2.25를 적용하면 수입은 2조 4천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2조 8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은 앞서 추정된 총국내투자의 변화에 반영되지만 외국에서 유입되는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국내의 GDP와 가계소득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표 9〉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변화

	달러기준 (백만 달러)		원화기준 (십억 원)	
	지급	수입	지급	수입
2018년 실적	29,752	34,013	32,735.9	37,424.7
조경엽·정연호(2018)	1,031	-1,740	1,134.3	-1,914.3
OECD(2015)	982	-1,122	1,080.3	-1,235.0
Hines & Rice(1994)	2,209	-2,525	2,430.6	-2,778.8

주: 조경엽·정연호(2018)의 준탄력성은 지급 1.55, 수입 -1.05 적용, OECD(2015)의 준탄력성은 기존연구의 평균값인 -1.0, Hines and Rice(1994)의 준탄력성은 -2.25를 적용

자료: 한국은행

#### IV. 결론

▣ 본 연구는 CEA(2017)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추정한 탄력성을 적용하여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추정하고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스톡 감소 → 노동의 생산성 감소 →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침
-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65% 증가하고, 총국내투자는 2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해외직접투자는 6조 7천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천억 원 감소하여 순자본유출이 10조 4천억 원 감소하여 총국내투자의 50%가 자본유출로 인해 발생함
- 총국내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스톡의 감소를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GDP는 단기에 0.31% 장기에 2.34% 감소하여 연평균 1.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동배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5만 원~75만 원 감소할 전망
- 다국적 기업의 해외로의 송금은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은 1조 9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10〉 법인세율 24.2%에서 27.5%로 3.3%포인트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

		증감	
자본의 사용자비용 (%)		3.65	
총투자(10억 원)	총국내투자	20961.6	
	해외직접투자(10억 원)	6,724.2	
	외국인직접투자(10억 원)	-3,633.6	
	순유출(10억 원)	-10,357.8	
GDP (%)	단기	-0.31	
	장기	-2.34	
	연평균	-1.03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원)	하한선	-653779	
	상한선	-745,351	
다국적 기업의 송금(10억 원)	국내에서 해외로의 송금	1,134.3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	-1,914.3	
다국적 기업의 국내송금에 따른 추가분	추가 GDP(%)	-0.09	
	추가 가구당 근로소득(원)	-97,302	
최종	연평균 GDP(%)	-1.12	
	가구당 근로소득(원)	하한선	-751,081
		상한선	-842,653

-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송금은 총국내투자에 반영되지  
만 해외에서 송금된 소득은 국내투자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GDP와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전망
  - 추가 감소요인을 반영하면 GDP는 연평균 1.12% 감  
소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간 75만 원에서 84만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 법인세율 인상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투자감소, 고  
용감소, 성장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가 요구됨**
- 미국이 법인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고용증가와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  
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로 평가됨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  
용 및 심사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

조경엽, 2016,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6-13.

Arulampalam, W., Devereux, M. P., and Maffini,  
Giorgia, 2012, “The Direct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on Wages”,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038-1054.

Auerbach, A. and Hassett, K. A., 1992,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7:  
141-170.

Azémar, C. and Hubbard, G. R., 2015, “Country  
Characteristics and the Incidence of Capital  
Income Taxation on Wages: An Empirical  
Assess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8(5): 1762-1802.

CEA, 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ober, 2017.

Cummins, J. G. and Hassett, K. A., 1992, “The Effects  
of Taxation on Investment: New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  
243-252.

Desai, M., Foley, C. F., and Hines, J. R., 2007,  
December,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 In  
Conference on Who Pays the Corporate Tax in  
an Open Economy.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3,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ynthesis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 673-693.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5, “Explaining  
the Variation in Empirical Estimates of Tax

- Elasticit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2005-108/3.
- Dwenger, N., 2014, “User Cost of Capital Revisited”, *Economica* 81: 161-186.
- Ebrahimi, P., and Vaillancourt, F., 2016,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and Payroll Taxes on the Wages of Canadian Workers”, Fraser Institute.
- Felix, R. A., 2009, “Do State corporate income taxes reduce wages?”, *Economic Review—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94(2), 77.
- Fuest, C., Peichl, A., and Siegloch, S., 2017, “Do Higher Corporate Taxes Reduce Wages? Micro Evidence from Germany”, *Americ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Gravelle, J. and Smetters, K. A., 2006, “Does the Open Economy Assumption Really Mean That Labor Bears the Burden of a Capital Income Tax?”, *Advance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6(1).
- Harhoff, D. and Ramb, F., 2001, “Investment and taxation in germany—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Investing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Studies on the investment process in Europe*, Springer, Heidelberg, 47-84.
- Hassett, K. A., and Hubbard, R. G., 2002, “Tax policy and business investment”,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3, 1293-1343.
- Hassett, K. A. and Mathur, A., 2015, “A Spatial Model of Corporate Tax Incidence”, *Applied Economics*, 47(13): 1350-1365.
- JCT, 2017,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November 16, 20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 JCT, 2017,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1, the “Tax Cuts and Jobs Act”, JCT December 18, 2017, JCX-76-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 Jost H. Heckemeyer and Michael Overesch, 2013, “Multinationals”, Profit Response to Tax Differentials: Effect Size and Shifting Channels, Discussion Paper No. 13-045, Center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 Randolph, William C., 2006, “International Burde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orking Paper No. 2006-09.
- Summer, 2017, “Hassett’s flawed analysis of the Trump tax plan”, CNBC, 2017.10.17.
- Tax Foundation, 2017, “The Jobs and Wage Effects of a Corporate Rate Cut”.
- Tax Foundation, 2017,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